

‘한(韓)’의 유래와 명칭의 형성

전진국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한국고대사 전공
82jeon@naver.com

- I. 머리말: 기존의 연구와 그 한계점
- II. 준왕(準王)과 관련된 ‘韓’의 기원
- III. 준왕 일족의 한씨(韓氏) 모성(冒姓)
- IV. ‘韓’의 인식과 명칭의 형성과정
- V. 맺음말

I. 머리말 : 기존의 연구와 그 한계점

현재 우리나라 국호에 사용되고 있는 ‘韓’이라는 명칭은 상고시대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존재했던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 즉 삼한(三韓)에 기원을 둔 것이다. 삼한의 사회·문화·정치·대외관계 등에 관한 연구는 『삼국지(三國志)』·『후한서(後漢書)』의 동이전(東夷傳)과 『삼국사기(三國史記)』 초기 기사를 기본 문헌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축적되어가는 고고학 발굴 성과에 힘입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글은 이러한 기본 문헌 자료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삼한의 ‘韓’이라는 명칭, 즉 상고시대부터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종족과 그 땅을 어떠한 계기로 ‘韓’¹⁾이라고 호칭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주목적이다.

물론 ‘韓’이라는 종족 단위는 한반도 중부이남 지역에서 석기시대 이래 장구한 기간 동안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때로는 외부에서 이주해 온 집단들을 흡수하며 계승 발전한 종족 집단에 대한 통칭으로 보는 것이²⁾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韓’이라는 명칭의 기원과 그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앞의 명제와 같이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정설은 없다. 현재까지 고대사 연구에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주민인 한족(韓族)의 형성이라든지, 또는 ‘韓’이라는 명칭의 형성만 깊이 있게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민족기원론이나 삼한에 관한 연구를 하는 데 이 주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에 부수적으로 자주 언급되어왔다. 그래서 그 연구 성과 또한 적지 않다.

선행 연구에서는 ‘韓’이라는 명칭의 기원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음운학적으로 ‘韓’의 어원을 찾는 경우이다. 우리말에서 크다높다의 뜻을 가진 단어 중 하나가 ‘한’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언어권인 만몽어(滿蒙語)에서는 군장[君長, 대인(大人)]을 한(汗, Han) 또는 가한(可汗, Khahan)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사항에 착안하여 ‘韓’의 어원도 우리말 ‘한’을 한자(漢字)로 새긴 것에서 유래했다는 논지이

1) 이 글에서 사용하는 ‘韓’이라는 명칭과 그 개념은 한국 고대사에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지칭하는 韓地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 집단인 韓族,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겠다.

2) 노태돈, 「문헌상으로 본 백제의 주민구성」, 『백제문화대계 연구총서 2-백제의 기원과 건국』(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149쪽; 권오영, 「馬韓의 종족성과 공간적 분포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60(한국고대사학회, 2010), 15쪽.

다. 韓의 명칭 기원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연구사적으로 매우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확인되는 바로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이 처음으로 韓의 명칭 기원을 우리말의 크다·높다라는 뜻을 가진 ‘한’이라는 토착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³⁾ 그리고 1739년 청나라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역사적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한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에서는 만몽어 한가한에서 유래한 것으로 서술하였다.⁴⁾ 일제 강점기 식민사학자들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 음운학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⁵⁾, 한국 근현대 역사학에 들어와서도 대부분 이 음운학적인 해석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⁶⁾

음운학적으로 해석하는 견해 중, 그 근거 사료를 삼한과 같은 시대의 사료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상서공씨전(尙書孔氏傳)』에 등장하는 ‘駟’⁷⁾ 삼한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당대(唐代) 공영달(孔穎達)이 ‘駟’은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동이전에 나오는 ‘韓’과 같은 것이라는 내용의 소(疏)를 한 것을⁸⁾ 주요 근거로 하는 견해이다.⁹⁾ 하지만 한대(漢代)의 『고문상서(古文尙書)』는 서진(西晉) 영가(永嘉)의 난(307-312) 이후 모두 산일(散逸)되어 전해지지 않고, 현재까지 전해지는 『상서공씨전』은 동진(東晉) 원제(元帝, 317-322) 때 매색(梅賾)이 현상한 것으로 위서(僞書)임이 밝혀졌다.¹⁰⁾ 『상서공씨전』이 동진 원제 때에 작성된

- 3) 『我邦疆域考』 「三韓總考」(정약용 지음, 이민수 옮김, 『아방강역고』, 범우사, 1995, 93-94쪽).
- 4) 『滿洲源流考』 卷2 「部族二 三韓」(尹百鉉 編, 『滿洲源流考』, 弘益齋, 1993, 69-70쪽).
- 5) 那珂通世, 「朝鮮古史考-三韓考」, 『史學雜誌』 6(東京大學 文學部內 史學會, 1895), 406쪽; 鮎貝房之進, 「韓をカラと訓じたるに就きて」, 『雜攷 新羅王號攷·朝鮮國名攷』(國書刊行會, 1972), 132쪽.
- 6) 申采浩, 「前後三韓考」, 『朝鮮史研究草』(朝鮮圖書株式會社, 1929), 37쪽; 李丙燾, 「箕子朝鮮의 正體와 所謂 ‘箕子八條法’에 대한 新考察」,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1976), 50-55쪽; 丁仲煥, 「辰國 三韓及加羅의 名稱考」, 『釜山大學校十周年記念論文集』(1961), 12-14쪽; 金廷鶴, 「韓國民族形成史」, 『한국문화사대계』 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4), 411-414쪽.
- 7) 『尙書』의 원문은 “武王既伐東夷肅愼來賀”이고, 이에 대한 孔安國의 傳이 “海東諸夷 駒麗扶餘駟狁之屬 武王克商皆通道焉”이다. 藝文印書館印行, 『重刊宋本 十三經注疏』 1(1982), 272쪽.
- 8) 孔穎達의 疏는 다음과 같다. “漢書有高句麗 扶餘 韓 無此駟 駟卽彼韓也 音同而異爾.” 위의 책, 272-273쪽.
- 9) 吉田東伍, 『半嶋諸國』, 『日韓古史斷』(富山房, 1893), 82-83쪽; 任昌淳, 「辰韓位置考」, 『사학연구』 6(한국사학회, 1959), 12쪽; 金貞培, 「진국’과 ‘한’에 관한 고찰」, 『韓國古代史와 考古學』(신서원, 2008), 227-229쪽.

위서라면 삼한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삼국지』보다 후대의 저술이다. 따라서 이 사료를 근거로 ‘韓’이라는 명칭이전한(前漢)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같은 음인 ‘駟’으로도 표기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동진 때에 한반도 남부의 ‘韓’을 ‘駟’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같은 문장 내에서 고구려(高句麗)를 구려(駒麗)라고 표현한 것처럼 비칭(卑稱)의 의도라 생각된다.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지칭하는 ‘韓’이라는 명칭이 같은 음인 한(汗)·감(邯)·한(漢)·간(駟) 등으로 쓰이는 예는 없다. 오직 ‘韓’으로만 쓰일 뿐이다. 또한 상고시대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크다·높다는 뜻을 가진 ‘한’이라는 음이 지명이나 관직명에 쓰였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지만 그것과 관련하여 그 지역 전체를 ‘한’이라 호칭하였고 한자로는 ‘韓’으로 표기했다는 것은 어떠한 역사적 근거도 없는 추측일 뿐이다. 따라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지칭하는 ‘韓’의 어원이 우리말 크다·높다의 뜻을 가진 ‘한’을 한자(漢字)로 새긴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간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사료의 한계로 인해 음운학적인 면에 너무 의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축적된 선행 연구를 비판 없이 답습한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견해는 ‘韓’이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종족적 기원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시경(詩經)』 「대아(大雅)」 한혁편(韓奕篇)에 등장하는 한후(韓侯)·한성(韓城)에서 찾는 연구이다. 조선 후기 한치윤(韓致胤)부터 이 한혁편에 등장하는 한후가 동쪽으로 옮겨 온 기자(箕子)가 아닐까 하고 추측하였다.¹¹⁾ 근대 역사학에 들어서는 이 한혁편에 등장하는 한후추(追)·맥(貊)이 곧 우리의 종족적 기원인 한(韓)·예(濊)·맥으로, 중원 지역에서 한반도로 이동하였다는¹²⁾ 이동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이동설은 그것을 뒷받침해줄 만한 고고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실제 한혁편의 한후는 우리나라의 삼한과 시간상·거리상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한혁편의 한후·한성에 대한 여러 역사적 해석이 제출되었고, 그

10) 李春植 主編, 『중국학자료해제』(신서원, 2003), 331-333쪽.

11) 『海東繹史』 卷3 「世紀」 3 三韓(한치윤 저, 정선용 역, 『국역 해동역사』 1, 민족문화추진회, 1996, 29-31쪽).

12) 金庠基, 「韓·濊·貊 移動考」, 『동방사논총』(서울대학교출판부, 1974), 355-368쪽.

과정에서 이는 삼한의 韓과 관계가 없다는 견해들이 개진되었다. 한혁편의 한후는 춘추시대 진(晉)에서 분립한 전국시대 한(韓)나라의 선조라 하거나¹³⁾, 서주시대의 청동기 명문(銘文)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러 세력과 같이 서주 후기 중원 동북 변방에 존재한 ‘불특정 주변 세력’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¹⁴⁾ 또는 한혁편 시 구절 중에 ‘연사(燕師)’의 ‘연(燕)’을 연(燕)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안(燕安)’, 즉 ‘평안(平安)’이란 뜻으로 보는 후한(後漢) 때의 학자 정현(鄭玄)의 견해를 옳게 여겨 삼한의 韓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제시되었다.¹⁵⁾ 필자 또한 한혁편의 한후는 삼한의 韓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좀 더 견해를 명확히 하자면, 서주(西周) 주변의 불특정 주변 세력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혁편의 韓은 삼한의 韓과 실제 역사상 아무 관련이 없음을 밝혀둔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성좌분야설(星座分野說)에서 동방의 별자리와 연결되는 땅이 한지(韓地)이며, 한반도 남부 지역의 주민 집단도 모두 은(殷)에서 유래한 중국계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이 이름을 붙였다는 견해이다.¹⁶⁾ 진국(辰國)에 ‘辰’의 경우도 12지(支)를 별자리로 표현할 때 동방을 가리키는 것이 辰이므로 여기서 유래했다고 한다.¹⁷⁾

하지만 중국 사서에서 성좌 분야가 인용된 것을 보면, 이 견해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한서』 「지리지(地理志)」에는 한대(漢代) 본토의 모든 군(郡)을 나열하여 그 군의 호구(戶口) 수와 소속된 현(縣)을 소개하였다. 그다음으로 중국 전 지역을 진지(秦地)·위지(魏地)·주지(周地)·한지(韓地)·조지(趙地)·연지(燕地)·제지(齊地)·노지(魯地)·송지(宋地)·위지(衛地)·초지(楚地)·월지(粵地)로 나누어 그 땅에 해당하는 별자리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다시 그 지(地)에 소속된 대표적인 군(郡)을 나열하고, 지리적 위치와 특이사항 등을 간단히 소개하

13) 黃義敦, 「詩經의 解釋」, 『동국사학』 4(동국대학교 사학회, 1956), 94-96쪽.

14) 沈載勳,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안 모색: 『詩經』 “韓奕”편 다시 읽기」, 『동방학지』 137(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 251-297쪽.

15) 노태돈, 앞의 논문(2007), 147-149쪽.

16) 이성규, 「고대 중국인이 본 한민족의 원류」, 『한국사 시민강좌』 32(일조각, 2003), 132-134쪽.

17) 村山正雄, 「辰國臆斷」, 『朝鮮學報』 81(朝鮮學會, 1976), 405-408쪽; 이성규, 위의 논문, 132-134쪽.

였다.¹⁸⁾ 그러나 『한서』 「지리지」에 서술되어 있는 성좌 분야는 어디까지나 중원 지역 안에 한정된 것이고 그것에 맞추어 일치시킨 것이다. 『한서』 「지리지」 외에 성좌 분야가 언급되어 있는 『회남자(淮南子)』 「천문훈(天文訓)」·『사기(史記)』 「천관서(天官書)」·『진서(晉書)』 「천관지(天官志)」에서도 마찬가지이다.¹⁹⁾ 성좌 분야를 중원의 범위에서 벗어나 변방의 다른 종족에게까지 적용시킨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주장을 한 선행 연구에서도 이례적인 경우라 하였듯이, 우리나라의 韓을 제외하고는 중국 성좌 분야의 방위관념을 적용하여 그에 해당하는 중국의 지명·국명을 주변 이종족의 이름에 붙이는 경우는 없다. 이 점은 ‘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좌 분야와 관련된 십이지의 글자로 주변 이민족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삼한의 ‘韓’이라는 명칭이 형성되는 데 중국의 성좌 분야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韓’이라는 명칭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역시 『삼국지』와 『위략(魏略)』에 서술되어 있는 한지(韓地)·한왕(韓王)·한씨(韓氏) 기사에 먼저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시기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그 사료를 작성한 사가의 입장으로 돌아가 서술 배경과 의도를 찾아내고 실재를 탐구하는 것 속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선행들도 누차 이 사료들을 언급하였지만 ‘韓’의 명칭에 대해서는 결국 이 사료들의 외적인 것에서 찾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사료들은 ‘韓’의 기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마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세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논의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韓’의 기원에 관한 사료에 더욱 치중하겠으나 비판적 자세로 다가가 그 실재를 고증해보겠다. 그리고 상고시대 한반도의 역사적 흐름과 韓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알아봄으로써 ‘韓’이라는 명칭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해보겠다.

18) 『漢書』 卷28下 「地理志」 第8 上·下(中華書局, 1962), 1523-1674쪽.

19) 이문규, 「천문의 원리와 실제 적용」,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문화과 지성사, 2000), 68-70쪽.

II. 준왕(準王)과 관련된 ‘韓’의 기원

1. 준왕과 관련된 한지(韓地)·한왕(韓王)

韓에 관한 연구를 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문헌 사료는 단연 『삼국지』 동이전의 한조(韓條)이다. 그중 ‘韓’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는 기사가 준왕(準王)이 남천(南遷)하여 한왕(韓王)을 칭했다는 기사이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는 『후한서』에도 수록되어 있다. 먼저 이에 관한 사료를 제시해보겠다.

<가-1> 朝鮮侯 準이 참람되게 왕이라 일컫다가 燕나라에서 亡命한 衛滿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다. 준은 그의 近臣과 宮人을 거느리고 바다로 달아나 韓地에 거처하며 스스로 韓王이라 칭했다. 그 뒤 준의 후손은 絶滅되었으나 지금 韓人 중에는 아직 그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있다.²⁰⁾

<가-2> 처음 朝鮮王 準이 衛滿에게 패하여, 자신의 남은 무리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로 달아나, 馬韓을 공격하여 깨뜨리고 스스로 韓王이 되었다. 준의 후손이 絶滅되자, 마한 사람이 다시 자립하여 辰王이 되었다.²¹⁾

두 사료에서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위만에게 패한 준왕이 바다를 건너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옮겨 와 한왕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반면 다른 점이라면 사료 <가-2>에서는 마한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같은 역사적 전승을 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사서에서조차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삼국지』를 편찬한 진수(陳壽, 233-297)와 같은 시대의 인물인 장화(張華, 232-300)에 의해 작성된 『박물지(博物志)』에도 준왕 전승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망명한 준왕이 선국사(鮮國師)가 되었다” 하여²²⁾ 사료 <가-1·2>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사료 <가-1·2>와 『박물지』에 수록되어 있는 준왕의 전승을 동시에

20) 『三國志 魏書』卷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侯準既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其後絶滅 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中華書局, 1982, 850쪽).

21) 『後漢書』卷85 「東夷列傳」第75. “初 朝鮮王準爲衛滿所破 乃將其餘衆數千人走入海 功馬韓破之 自立爲韓王 準後滅絶 馬韓人復自立爲辰王”(中華書局, 1965, 2820쪽).

22) 『博物志』卷8. “箕子居朝鮮 其後伐燕之朝鮮 亡入海爲鮮國師”(『四部備要』422, 臺灣中華書局, 1981, 6쪽).

비교해보면, 남천에 관한 부분은 공통적이지만, 남천 뒤의 서술과 한자·한왕·마한에 관한 전승은 일정하지 않아 어느 것 하나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사료 <가-2>에 등장하는 마한을 불신하였고²³⁾, 최근에는 준왕 남천 자체를 모두 부정하여 이를 사가의 윤색으로 파악한 연구도 발표되었다.²⁴⁾ 이 글 또한 이 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앞의 선행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韓의 기원에 집중하여 준왕과 관련된 한자·한왕 그리고 준왕 남천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사료 <가-1.2>에 의하면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韓이라는 개념은 준왕 남천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그 당시에도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던 것처럼 서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준왕은 그 지역으로 옮겨 와 한왕을 칭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료 <가-1>에서 “한지에 와서 한왕을 칭했고, 절멸한 뒤에는 한인들이 그의 제사를 받들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韓에 대한 개념은 준왕 남천 이전부터 『삼국지』가 편찬된 3세기까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삼국지를 찬술한 진수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흔적이 보이며²⁵⁾,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른 사료와 차이가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박물지』의 기사는 준왕 남천 전승과 같은 유형이지만 준왕과 韓의 존재는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더 가까운 『사기』와 『한서』의 조선열전(朝鮮列傳)에서는 단순히 “위만이 진번(眞番)과 조선(朝鮮)의 만이(蠻夷) 및 옛 연(燕)·제(齊)의 망명자를 거느리고 왕이 되었다” 하여 준왕 전승 자체조차 찾아볼 수 없다.²⁶⁾ 그리고 조선의 남쪽 주변으로 판단되는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대해 『사기』와 『한서』에서는 각각 “진번방중국(眞番旁衆國)”²⁷⁾과 “진번진국(眞番辰國)”이라 표현

23) 申采浩, 앞의 책, 47쪽.

24) 박대재, 「준왕남래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선사와 고대』(한국고대학회, 2011), 111-133쪽.

25) 이 기사 외에 『삼국지』 한전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도 韓地·韓國·韓王·韓人의 개념은 사가에 의해 비교적 분명한 관계로 정리되었다고 한다. 申鉉雄, 『後漢書』韓傳의 典據 問題』, 『後漢書·三國志 韓傳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2), 30쪽.

26) 『史記』卷114 「朝鮮列傳」第55.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魁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涇水 居秦故空地上下郛 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 都王儉”(中華書局, 1982. 2985쪽); 『漢書』卷95 「西南夷兩粵朝鮮傳」第65.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椎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涇水 居秦故空地上下障 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在者王之 都王儉”(中華書局, 1962, 3863-3864쪽).

27) 『史記』의 ‘衆國’과 ‘辰國’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근 이에 대해 서지학적으로 자세히 연구한 박대재의 견해를 따라 판본상에서는 ‘衆國’이 맞는 것으로 보겠다. 박대

하였다. 그리고 진국(辰國)의 존재는 『위략』과 『삼국지』에도 나타난다. 『사기』와 『한서』의 조선열전에서 비록 韓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지만,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중국(衆國)과 진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 그 지역의 정치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는 할 수 없다.

당시의 중국인들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정치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왜(倭)의 존재를 보여주는 사료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한서』 「지리지」에서는 “낙랑(樂浪)의 해중(海中)에 왜인(倭人)이 있는데 백여 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였다.²⁸⁾ 낙랑의 남쪽으로 한반도 남부 지역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왜라는 정치체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정치체에 대한 지식 또한 분명 있었을 것이다. 이는 같은 『한서』에서 위만조선의 주변으로 ‘진변진국’이 나타나는 것에서도 증명된다. 『산해경(山海經)』에는 “개국(蓋國)은 거연(鉅燕) 남쪽에 있고 왜의 북쪽에 있는데, 왜는 연에 속해 있다”는 기사가 있다.²⁹⁾ 개국의 실체에 대해서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왜의 북쪽이라 한 것을 볼 때 분명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있었던 정치체였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³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반도 중남부 지역은 『삼국지』에서 韓이라고 표현되기 이전부터 중원에 알려져 있었는데, 그 지칭 대상은 韓이 아니라 중국(衆國)·진국·개국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되고 인식되어왔던 한반도 중남부 지역이, 『삼국지』 단계에 이르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지역에 산재해 있는 약 70여 개의 소국이 소개되는 식으로 비교적 자세히 서술된다.³¹⁾ 그리고 그 지역을 마한·진한·변한

재, 「三韓의 기원에 대한 사료적 검토」, 『한국학보』 31(일지사, 2005), 5-11쪽.
28) 『漢書』 卷28下 「地理志」 第8下 燕地, “樂浪海中有倭人 分爲百餘國 以歲時來獻見云”(앞의 책, 1658쪽).

29) 『山海經』 第12 「海內北經」, “蓋國 在鉅燕南倭北 倭屬燕”(郭璞 傳, 郝懿行 箋疏, 『山海經箋疏』, 藝文印書館, 1967, 367쪽).

30) 선행 연구에서는 蓋國을 한강 이남 지역에 위치한 諸部族社會의 총칭으로 보았고, 개국의 명칭은 蓋馬國의 약칭이며 마한의 명칭과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였다(李丙燾, 「蓋國과 辰國 問題」, 앞의 책, 238-239쪽).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기사 중 鉅燕(大燕)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연나라의 전성 시기가 기원전 2세기 초 준왕이 위만에게 패하여 남천하기 이전이므로, 그 이전부터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정치체가 있었다고 상정하기도 한다(金貞培, 「準王 및 辰國과 三韓正統論의 諸問題」,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6, 253쪽).

31) 『三國志』보다 40년 정도 앞서 편찬된 謝承의 『후한서』에도 동이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삼한에 대해서는 臘日제사와 관련된 기사만 확인된다. 박대재, 「謝承

으로 나누었고, 그 ‘韓’의 기원에 관해서는 기원전 2세기 초 “준왕이 한지에 와서 한왕을 칭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준왕이 남천한 기원전 2세기 초는 『사기』와 『한서』가 편찬되기 이전이다. 사료 <가-1·2>만 놓고 본다면 한지와 마한은 기원전 2세기 초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준왕의 남천과 ‘韓’이라는 것은 『사기』와 『한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약 400년이 지난 『삼국지』 단계에서 처음 나타난다.³²⁾

사료 <가-1>의 기사는 『삼국지』가 편찬된 시점으로부터 무려 4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韓’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 기사이지만 사실적이지 못하다. 『삼국지』 한전에서 “준왕이 한지로 가서 한왕을 칭했다”는 기사를 수록한 이유는 그 지역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한 것보다 단순히 ‘韓’의 기원을 언급하기 위해 작성한 의도가 다분히 강하다. 이 점은 『후한서』 한전 내에서 사료 <가-2>가 가지는 성격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료 <가-2> 기사만 놓고 본다면, “준왕이 남천하여 한왕이 되었는데, 후세가 절멸하여 마한 사람들이 다시 왕이 되어서는 진왕이라 했다” 하니, 한왕은 준왕만이 칭했던 것이다. 마한이라는 정치체가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옮겨 온 준왕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왕을 칭했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할 수 없지만³³⁾, ‘韓’이라는 개념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과 관련하여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준왕에게만 관련되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따라서 사료 <가-1·2>를 근거로 하여 기원전 2세기 초 준왕이 남천하기 전부터 한지 또는 마한이라는 개념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준왕이 한왕을 칭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기원전 2세기 이전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韓’이라는 개념은 없었으며, 사료 <가-1·2>에 등장하는 한지·한왕 그리고 마한에 관한 서술은 모두 준왕의 남천 전승과 함께 후대의 인식이 반영되어 꾸며진 서술이다. 이러한 사료적 맥락에서 본다면 준왕의 남천 또한 그 사실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後漢書』東夷列傳에 대한 예비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5(2009), 40-68쪽.

32) 『사기』와 『한서』에서 ‘韓’의 명칭이 나타나지 않음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고, 그로 인해 『三國志』의 韓地·韓王 기사는 후대의 지리 정보에 의한 『삼국지』 찬자의 追記라 하였다. 박대재, 「馬韓의 왕과 中國郡縣과의 전쟁」,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경인문화사, 2006), 90-92쪽.

33) 반면 준왕이 南遷하기 전부터 마한이라는 정치체가 있었고, 준왕은 이를 의식하여 한왕이라 칭한 것이라 보는 견해가 있다. 盧重國, 「馬韓의 成立과 變遷」, 『마한·백제문화』 10(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7), 33쪽.

2. 준왕의 남천

그간 우리 학계에서는 사료 <가-12>의 기사를 근거로,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에게 패한 준왕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옮겨 왔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였다. 그래서 이 기사를 두고 주로 이루어진 작업은 준왕이 남천한 곳에 대한 위치 비정³⁴⁾ 역사 계승에 관한 인식으로 삼한정통론(三韓正統論)이 논의되었다.

먼저, 문헌에 나타나는 준왕의 남천이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유물 분포와 선후 상관관계에서도 부합되어 준왕 남천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며, 이를 근거로 위치를 비정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다. 문헌에서는 준왕이 옮겨 간 곳을 단지 추상적으로 한지와 마한이라고만 하였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완전히 준왕을 상징하는 유물을 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왕이 옮겨 간 특정 지역을 비정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비록 한반도 서북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의 청동기-초기철기 유물군이 여러 면에서 선후 상관성을 가지며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특정 인물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그러한 시기에 북으로부터 오는 여러 차례 유민의 파동³⁵⁾, 또는 두 지역 간의 장기적인 교류에 의한 문화 전파³⁶⁾ 생각해볼 여지가 더 크다.

다음으로 문헌에 서술되어 있는 사료적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우선 준왕 남천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상황이라 할 경우, 그 사건의 중요성에 비해 사료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너무 소략하고 추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고조선 측의 자료가 전해지지 않고 중국 측의 사료에 번방(藩邦) 국가의 왕이 축출되는 사건을 기술한 것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단지 “위만에게 패해 근신과 궁인만 거느리고 바다로 달아났다”라는 짧고 추상적인 전승만으로 이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무심코 결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간략하고 추상적인 기록을

34) 준왕이 남천한 곳에 대한 위치 비정은 조선 초기에 편찬된 『高麗史』 「地理」, 『世宗實錄』 「地理志」 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諸說의 소개와 연구사 정리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朴燦圭, 「文獻을 통해 본 馬韓 中心勢力」, 『百濟의 馬韓 征服過程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5), 62-69쪽.

35) 李賢惠, 「馬韓地域 諸小國의 形成」,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일조각, 1984), 36쪽.

36) 박대재, 「삼한의 기원과 국가형성」, 『한국고대사입문』 1(신서원, 2006), 262-263쪽.

보충하기 위해 사료 <가-2>에서는 사가가 몇 가지 윤색을 한 흔적이 드러나는데, 그 부분은 사실성이 크게 떨어진다. 먼저 준왕이 위만에게 패한 다급한 상황에서 수천인을 거느릴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이고, 설사 수천인을 거느리고 바다로 달아나 마한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그 군사로 마한을 공격하여 깨뜨릴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이다.³⁷⁾ 이는 모두 사가가 덧붙인 것으로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없는 것들이다.

후한 말기 왕부(王符)의 『잠부론(潛夫論)』에서 처음으로 위만에게 패한 자가 해중으로 옮겨 갔다는 전승이 나타나는데³⁸⁾, 여기서는 아직 준왕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3세기 중반에 작성된 『위략』에³⁹⁾ 와서야 조선 왕의 이름으로 부(否)와 그의 아들 준(準)이 등장한다. 『위략』의 내용 중 준왕이 위만에게 패한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해중에 있으면서 조선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하여⁴⁰⁾, “한지에 가서 한왕이 되었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던 것이 3세기 후반에 작성된 『삼국지』에⁴¹⁾ 와서야 비로소 준왕이 韓의 땅인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옮겨 가 그곳에서 왕이 되었다는 식의 기본 골격이 잡히고, 『후한서』에 가서는 그 이야기가 더욱 논리 정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준왕 남천 전승에 대한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가까운 사료에서는 나타나지도 않던 이야기가 거꾸로 후대의 사료로 갈수록 점차 첨가되어 구체적으로 꾸며지는 양상은 이 기사의 신빙성을

37) 사료 <가-2>에 찬자의 윤문·과장이 있다는 것은 다음의 연구들에서 먼저 언급되었다.

李丙燾, 「韓」名稱의 起源과 辰韓의 性格, 앞의 책, 251쪽; 千寬宇, 「三韓考 第2部 - 「三國志」 韓傳의 再檢討 -, 『古朝鮮史·三韓史研究』(일조각, 1989), 226-227쪽.

38) 『潛夫論』 卷9 「志氏姓」 第35. “昔周宣王亦有韓侯 其國也近燕 故詩云 普彼韓城 燕師所完 其後韓西亦姓韓 爲衛滿所伐 遷居海中”(『四部備要』 357, 臺灣中華書局, 1981, 22쪽).

39) 『위략』의 저술 시기에 대해서는 일찍이 『삼국지』와 거의 같은 시기인 太康年間(280-289)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250-265년 사이로 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尹龍九,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한국고대사연구』 14, 1998b, 137쪽). 또한 魚參의 『위략』 이전에 原魏略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시되어(全海宗, 「魏略의 豫備的 考察과 三書의 成立 및 體裁」, 『東夷傳의 文獻的 研究』, 일조각, 1980, 39-41쪽) 이 글에서는 『위략』의 편찬 시기를 3세기 중반 정도로만 언급하겠다.

40) 『三國志 魏書』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裴松之注 所引 『魏略』, “準王海中 不與朝鮮 相往來”(앞의 책, 850쪽).

41) 『삼국지』의 편찬은 진수의 死後 筆寫되어 알려진 뒤, 1003년경 咸平刊本이 나오기까지 寫本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미 西晋代에 상당수의 異本이 존재했으며, 또한 429년 배송지가 행한 付注로 인해 본문과 주문의 혼란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尹龍九, 『三國志』 판본과 「東夷傳」 교감, 『한국고대사연구』 60, 2010, 250-251쪽). 이러한 점들 또한 사료 <가-1>의 사료적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

더욱 의심케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료적 맥락은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과 삼한정통론으로 연결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준왕의 존재와 그가 위만에게 패해 해중으로 옮겨 갔다는 전승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위략』인데, 그 서술의 앞부분에 의하면 준왕은 은(殷)나라에서 건너온 기자의 후손이다.⁴²⁾ 즉, 『위략』에 의하면 조선의 왕계는 기자로부터 준왕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삼국지』에 의하면 그 기자의 후손인 준왕이 한지에 가서 처음으로 한왕이 되었고 『후한서』에 의하면 韓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마한에 가서 한왕이 된다. 정리하면 기자의 후손에 의해 조선의 왕계가 이어지다가 준왕 때에 이르러서는 위만에게 패해 남쪽 한지(마한)로 옮겨 가 한왕이 되었다 함으로써, 韓의 기원 역시 은나라에서 건너온 기자의 후손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삼국지』의 이러한 준왕 전승은 이미 지적되었듯이 실제 역사라고 하기보다는 중국 중심의 관점에서 정리되어 서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⁴³⁾

준왕을 매개로 하여 기자조선에서 韓으로 이어지는 계승의식은 후대로 갈수록 굳어져 중국 사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서에서 더욱 명확해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 말 편찬된 『삼국유사』에서는 사료 <가-1>을 인용한 준왕 전승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준왕이 남쪽 韓의 땅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마한이라 했다” 함으로써⁴⁴⁾, ‘남천한 준왕에 의한 마한의 건국’이라는 뚜렷한 서술과 계승의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가서는 역대 왕조의 계승체계와 그 정통성을 세우는 강목체(綱目體) 역사 서술이 유행하자, 기자조선에서 마한으로 이어진다는 삼한정통론이 대두하였던 것이다.⁴⁵⁾ 이러한 인식에 의한 역사 서술과 정에서 준왕 남천과 그에 수반하는 韓의 기원은 더욱 공고해지고 기정사실화되었던 것이다.

42) 『三國志 魏書』卷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裴松之注 所引『魏略』, “魏略曰 昔箕子之後 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後亦自稱爲王 [...] 及秦并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否死 其子準立”(앞의 책, 850쪽).

43) 申鉉雄, 앞의 논문, 101-102쪽.

44) 『三國遺事』卷1 「紀異」第2 馬韓條. “魏志云 魏滿擊朝鮮 朝鮮王準率宮人左右 越海而南 至韓地 開國號馬韓”(姜仁求 外, 『譯註 三國遺事』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158쪽).

45) 李佑成, 「朝鮮後期 近畿學派에 있어서의 正統論의 전개」, 『역사학보』 31(역사학회, 1966), 175-176쪽; 李萬烈, 「17·18세기의 史書와 古代史認識」, 『한국사연구』 10(한국사연구회, 1974), 113-122쪽; 문창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삼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2(2011), 79-85쪽.

그러나 이는 기자가 동이 지역으로 온 뒤 그 후손이 계속 조선의 왕을 했다는 첫 단계부터 실제 역사와 맞지 않는 것이다. 기자 동래설은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중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후대에 가서는 우리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해 더욱 고착화된 전승이라고⁴⁶⁾ 할 수 있다. 준왕 남천과 그에 수반되는 ‘韓’의 기원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기자동래·기자조선의 연장선상에서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옮겨 갔다고 하여 ‘韓’의 정통성 또한 중국에서 시작된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역시 중국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나타난 것이고, 후대에 가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역사서에도 영향을 미쳐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고 정통론으로까지 논의되었던 것이다.

이 글은 위만이 준왕을 격파하고 왕이 되는 과정과 위만에게 패한 준왕의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서술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준왕이 위만에게 패해 남쪽의 한지로 가서 한왕이 되었다’는 전승만큼은 역사적 사실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료 <가-1·2>를 바탕으로 하는 ‘韓’의 기원과 준왕의 남천을 모두 부정하는 바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韓’이라는 명칭이 형성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II. 준왕 일족의 한씨(韓氏) 모성(冒姓)

1. 한씨 모성 기사의 사료적 가치

『삼국지』와 『후한서』의 한왕 기사와 함께 ‘韓’의 기원을 살피는 데 반드시 언급되는 사료가 준왕 일족의 한씨(韓氏) 모성(冒姓)을 기술한 『위략』의 일문(逸文)이다. 『위략』은 전본(傳本)이 전해지지 않지만 그 일문이 『삼국지』, 『한원(翰苑)』, 『태평어람(太平御覽)』 등에 수록되어 있고, 또 그 일문들을 모은 『위략집본(魏略輯本)』이 1924년 섬서문헌정집

46) 노태돈, 「기자동래설의 사실성 여부」,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풀빛, 1998), 289-303쪽; 박준형, 「한국 근현대 기자조선 인식의 변천」, 『고조선사 연구 100년』(학연문화사, 2009), 98-126쪽.

치간(陝西文獻徵輯處刊) 관농총서(關隴叢書)의 일부로 간행되어⁴⁷⁾ 어느 정도의 본문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위략』의 일문 중 준왕 일족의 한씨 모성에 관한 기사는 배송지(裴松之, 372-451)가 『삼국지』에 주석을 한 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그 『위략』 일문을 중심으로 ‘韓’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겠다.

<나> 『위략』에서 말하기를 準의 아들과 친척으로서 나라에 있던 그 사람들은 이로 인해 韓氏를 冒姓했다. 준은 해중으로 가서 왕이 되었으나 조선과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⁴⁸⁾

보통 이 사료는 앞서 살펴본 사료 <가-1>과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두 기사를 연결하여 준왕이 위만에게 패해 한지에 가서 한왕을 칭한 것으로 인해 나라에 남아 있던(현재의 평양 지역) 그의 아들과 친척들이 ‘韓’을 성씨로 삼았다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앞서 알아보았듯이, “준왕이 한지에 가서 한왕을 칭했다”는 것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꾸며진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이 기사 또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역사가 아닌 꾸며진 이야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먼저 사료 <나>만 놓고 본다면, 내용상 준왕 일족의 한씨 모성은 준왕 남천과 한왕 기사에 꼭 부합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료 <나>에서 “준왕의 아들과 친척이 그로 인해 한씨를 모성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준왕이 옮겨 간 곳은 한지가 아닌 해중⁴⁹⁾이라고만 하였으며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특히나 준왕 본인과 관련된 ‘韓’의 존재는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다. 준왕이 한지에 가서 한왕을 칭한 것으로 인해 평양에 남은 준왕의 아들과 친척들이 한씨를 모성한 것이라면, 사료 <나>에서 준왕이 옮겨 간 곳을 해중이 아닌 한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로 인해 한씨를

47) 全海宗, 앞의 논문, 43쪽.

48) 『三國志 魏書』卷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裴松之注 所引, 『魏略』. “魏略曰 其子及親留在國者 因冒姓韓氏 准王海中 不與朝鮮相往來”(앞의 책, 850쪽).

49) 『山海經』, 『漢書』 등과 같은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 주변 이민족의 위치를 나타내는 ‘海’와 ‘海中’이라는 표현은 ‘바다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라, ‘어두운 미개의 지역’ 또는 ‘중국 지배권 밖의 야만인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는 사료 <다-1>에 있는 ‘海中’이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한다. 角林文雄, 『北九州と南朝鮮』, 『倭と韓』(學生社, 1983), 43-46쪽.

모성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더 후대의 사료인 『삼국지』 기사만을 의식하여, 그것에 맞추어 “준왕의 아들과 친척들이 한씨를 모성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내용상 사료 <나>가 사료 <가-1>의 『삼국지』 기사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준왕 일족의 한씨 모성은 “준왕이 한지에 가서 한왕을 칭했다”는 『삼국지』 기사와 반드시 관련지어 해석할 필요가 없음을 먼저 지적하는 바이다.

다음은 사료 <나>의 사료적 맥락을 살펴보자.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이 조선으로 망명한 뒤 준왕을 격파하고 왕이 되는 과정을 서술한 것은 그 어느 사료보다 『위략』의 기사가 상세하다. 하지만 준왕이 위만에게 패한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위만에게 패한 뒤의 준왕에 대해서는 “해중으로 가서 조선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는 것뿐으로 매우 소략하다. 사료 <나>에서 준왕이 위만에게 패한 뒤의 서술이 짧고 ‘韓’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위략』 내에서 준왕에 관한 전승은 거기까지이며, 또한 이 사료는 삼한의 역사 서술이기보다는 고조선에 관한 역사 서술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삼국지』 판본에 따른 글자와 문장의 이동 없이 이 기사는 모두 동일하게 사료 <가-1>의 주(注)로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배송지가 『삼국지』에 주를 다는 과정에서 한조의 한왕 기사에 첨부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단순히 사료 <나>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이는 분명 삼한과 관련된 사료이기보다는 위만에게 패한 고조선 왕에 대한 기사이다.

『삼국지』 한조에 인용되어 있는 『위략』의 일문 중 사료 <나>의 앞에 있는 ‘기자 동래부터 위만이 왕이 되는 과정’의 기사와 사료 <나>의 뒤에 있는 ‘조선상(朝鮮相) 역계경(歷谿卿)이 진국(辰國)으로 갔다’는 기사 또한 『위략』 내에서는 삼한에 관한 역사이기보다는 고조선에 관한 역사 서술로 보아야 한다. 이는 1924년 장봉일이 『위략』의 일문을 엮어 편찬한 『위략집본』에서, 이 세 일문을 묶어 ‘조선(朝鮮)’이라는 조로 분류한 것에서⁵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실제 어환의 『위략』에서는 『삼국지』와 달리 조선에 관한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사료 <가-1>과 사료 <나>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으며 서로 보완되는 기사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기사로

50) 魚豢 撰, 張鵬一 輯, 『魏略輯本』(孟夏陝西文獻徵輯處刊, 1924, 국립중앙도서관본, 145-146쪽).

단지 배송지에 의해 사료 <나>가 사료 <가-1>의 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다음은 사료 <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위략』에 수록되었으며 그 신빙성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어환이 『위략』과 함께 『전략(典略)]을 찬술했다는 것은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⁵¹⁾와 『구당서(舊唐書)] 『경적지]⁵²⁾ 그리고 『사통(史通)] 『내편(內篇)]⁵³⁾에서 각각 확인된다.⁵⁴⁾ 또한 그가 경조인(京兆人)이며 위(魏) 명제(明帝) 때(226-239) 낭중(郎中)의 직(職)에 있었고 위·진의 교체기를 경험했다는 것에서도 『위략』을 찬술했다는 것은 의심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위략』은 정사(正史)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 전거 또한 정사보다는 개인의 전기에 속하는 도청도설(道聽塗說)이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 내용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 사료 <나> 또한 그러한 것으로 파악하여 그 설을 아예 허구로 보기도 한다.⁵⁵⁾ 『위략』의 전거와 그 기사의 신빙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최근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동이에 관한 부분만 집중해 살펴보겠다.

『위략』의 기사 중 동이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면, 어환은 동이 지역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사신과 그 밖의 왕래자들에게 직접 들은 것을 바탕으로 찬술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위략』의 동이 부분은 대체로 후한(後漢) 때 중국인의 조선에 대한 지식으로 기자조선·위만 그리고 한사군(漢四郡)에 관한 것이며, 어환의 생존 시기인 위·진 때에 해당하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략』의 동이 부분 찬술은 그 시대의 견문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찬술한 것이 아니라 전사(前史) 또는 타서(他書)에 의한 찬집(撰輯)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⁵⁶⁾

구체적으로 『위략』도 진수의 『삼국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찬술된 것으로 보며, 두 사서 모두 앞서 편찬된 왕심(王沈, ?-266)의 『위서(魏書)]

51) 『隋書』卷33 「經籍志」第28. “典略八十九卷 魏郎中魚豢撰”(中華書局, 1973, 961쪽).

52) 『舊唐書』卷46 「經籍志」第26. “魏略三十八卷 魚豢撰”(中華書局, 1975, 1989쪽); “典略五十卷 魚豢撰”(1994쪽).

53) 『史通通釋』卷12 「外篇 古今正史」. “先是魏時 京兆魚豢私撰魏略 事止明帝”(『四部備要』320, 臺灣中華書局, 1981, 13쪽).

54) 『魏略』과 『典略』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全海宗, 「『魏略』과 『典略』」, 『역사학보』 99·100(역사학회, 1983), 215-230쪽.

55) 任昌淳, 앞의 논문, 16쪽.

56) 全海宗, 「古代 中國人の 韓國觀」, 『한국사학』 6(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연구실, 1985), 29쪽.

에 의거했다고 보기도 한다.⁵⁷⁾ 하지만 최근에 연구되는 『위략』의 찬술 연대를 따르면 『위략』이 『삼국지』보다 찬술 시기가 30년 정도 앞선다. 그리고 『위서』는 왕심의 『위서』 외에도 하후담(夏侯湛)의 『위서』를 비롯하여 위탄(韋誕)·손해(孫該)·부현(傅玄)이 각기 찬술한 『위서』가 있는데 이는 거의 현존하지 않아 『위략』, 왕심의 『위서』, 『삼국지』와의 관계는 알 수 없다고 한다.⁵⁸⁾ 따라서 『위략』이 『위서』에 의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록 『위략』이 정사(正史)와 어긋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환이 경조인이며 낭중의 직을 역임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위략』의 전거는 조위(曹魏) 중앙정부에 소장되어 있던 정보나 기타 잡서들을 참고했을 여지가 크다. 특히 최근의 연구에서는 위(魏)가 238년 요동(遼東)의 공손씨(公孫氏) 정권을 무너뜨리고 요동과 낙랑·대방군을 차지했을 때 이곳에 남겨진 정보를 취득한 것에서 동이에 대한 자료를 얻어 『위략』의 동이 관계 기사를 작성했다고 한다. 또는 후한 광무제(光武帝) 때 요동태수(遼東太守)로 임명된 채동(蔡彤)이 척후(斥候)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가 쌓여 『위략』과 그 밖의 동이에 관한 찬술 자료로 인용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⁵⁹⁾

사료 <나>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위략』에 기재되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추적해보자면, 이 기사는 고조선 중심지인 현재의 평양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위만에게 패한 고조선 왕족에 관한 전승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위만조선은 90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한무제(漢武帝)의 원정군에게 무너지고 그 지역에는 낙랑군이 설치된다(기원전 108). 군현 설치를 계기로 중원 또는 요동 지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낙랑의 여러 정보 또한 중국에 전해졌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료 <나>는 낙랑군 사회에 전해지고 있던 위만 이전의 왕족에 관한 전승 또는 그 지역 한씨에 관한 전승이 중국에 전해져 동이에 대한 역사로 『위략』에까지 실린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었듯이, 진수는 『삼국지』를 찬술할 때 되도록 설화나 전승 같은 것은 배제하고 자신의 고증과 판단에 의해 체계적이며

57) 山尾幸久, 「魏志倭人傳の史料批判」, 『立命館文學』 260(1967); 김기섭 편역, 「魏志 倭人傳의 사료비판」, 『고대 한일관계사의 이해-倭』(이론과 실천, 1994), 68쪽.

58) 尹龍九, 앞의 논문(1998b), 137쪽.

59) 박노석,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정보 출처에 대한 고찰, 『전북사학』 38(전북사학회, 2011), 12-18쪽.

간단명료하게 서술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집필과 수정이 이루어지고 생략한 것이 있어 구체적 사실 이해를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⁶⁰⁾ 반면 어환은 『위략』을 찬술할 때 스스로의 집필과 저술보다는 자신이 접한 자료에서 여러 가지를 망라하여 수록하였다.⁶¹⁾ 사료 <가-1>과 <나>는 각각 『삼국지』와 『위략』의 그러한 특징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료 <가-1>은 당시의 지리 정보와 전승을 조합하여 진수가 개작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료이다. 반면 사료 <나>는 낙랑군에서 전해진 이야기가 사가의 개작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위략』에 실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평양에 남은 준왕의 아들과 친척들이 한씨를 모성했다는 것은, 낙랑군을 포함한 서북한 지역에 존재했던 준왕계 집단 또는 낙랑 한씨의 내력에 관한 것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므로 특별히 불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2. 서북한 지역의 한씨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된 이후 서북한 지역에 존재했던 준왕 일족이 한씨 성을 사용했다는 것은 후한 때의 학자 왕부(王符)의 『잠부론(潛夫論)』 「지씨성(志氏姓)」에서도 확인된다. 사료를 중복 인용하는 잘못이 될 수도 있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다시 한 번 언급하겠다.

<다> 옛날 周 宣王 때에 역시 韓侯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땅은 燕나라에 가까웠다. 그래서 詩에서 이르기를 “크고 큰 저 韓城이여 연나라 백성이 쌓았도다”라고 하였다. 그 뒤의 韓西(朝鮮의 誤, 또는 三韓의 서쪽) 역시 성이 한씨로 위만에 의해 멸망되어 해중으로 옮겨 갔다.⁶²⁾

이 사료는 이미 지적되어왔듯이 문맥이 난해하고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가의 오류이거나 조작된

60) 尹龍九, 「三國志 韓傳 對外關係記事에 대한 一檢討」, 『馬韓史 研究』(충남대학교 출판부, 1998a), 102쪽.

61) 田村專之助, 「魏略魏志東夷傳의 性質」上, 『歷史學研究』 79(歷史學研究會, 1940), 42-43쪽.

62) 각주 38)번과 같음.

것으로 평가되었다.⁶³⁾ 그러나 『시경』 인용 뒤 한서(韓西) 이후부터는 사료 <나>와 유사하게, 위만에게 패한 준왕 전승과 준왕 집단의 한씨 성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료가 사료 <나>와 다른 점은, 『위략』에서는 나라에 남은 준왕 일족이 한씨를 모성했다고 한 것에 반해 여기서는 『시경』 한혁편에 등장하는 한후를 고조선 왕족인 준왕 집단과 혈통적으로 연결시켜 준왕 집단이 위만에게 공파되기 이전부터 원래 한씨였다고 하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사료 <다>를 더 신뢰하여 준왕 집단이 원래부터 한씨 성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었지만⁶⁴⁾, 고조선 왕족이 준왕 이전부터 한씨를 성으로 하였다는 것은 성씨의 기원 문제나 韓이라는 명칭의 사용에서나 수긍하기 어렵다.⁶⁵⁾ 그래서 사료 <다>보다는 <나>의 『위략』 기사에 더 신빙성을 두어 준왕 집단은 처음부터 한씨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⁶⁶⁾ 타당할 것이다.

왕부가 준왕 집단의 기원을 『시경』 한혁편에 등장하는 한후와 연결시킨 이유는 기자전승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⁶⁷⁾, 같은 책 「오덕지(五德志)」에서 『사기』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에 서술된 기자전승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⁶⁸⁾ 단순히 그렇게 판단할 수만은 없다. 「지씨성」편이 여러 성씨의 기원과 내력을 각종 전적과 왕부 자신의 지식으로 서술한 편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저자 왕부는 건문을 통해 접한 낙랑 한씨를 확실한 계통을 알 수 없는 『시경』 한혁편의 한후와 임의로 연결시켰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잠부론』에서는 후한 영토의 동쪽 끝으로 낙랑이 거둬 언급되어 있는데⁶⁹⁾, 이를

63) 任昌淳, 앞의 논문, 12-13쪽; 沈喞俊, 「箕子東來與否와 箕侯에 대하여」, 『숙대사론』 2(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1965), 49쪽; 金貞培, 앞의 논문(1986), 379쪽; 박대재, 앞의 논문(2005), 12-13쪽.

64) 李丙燾, 앞의 책, 45-56쪽.

65) 任昌淳, 앞의 논문, 16쪽; 丁仲煥, 앞의 논문, 13-14쪽; 金廷鶴, 앞의 책, 414쪽.

66) 리지린, 「진국(삼한)에 대한 고찰」, 『고조선연구』(열사람, 1989), 263쪽; 박대재, 앞의 책(2006), 89쪽.

67) 조선 후기의 실학자 韓致彞부터 이 사료를 통해 ‘한혁편의 한후가 과연 箕氏를 가리켜서 말한 것은 아닐까’ 하고 추측하였고(한지윤 저, 정선용 역, 앞의 책, 1996, 31쪽), 최근의 윤용구 또한 왕부가 기자 전승의 영향을 받아 이 사료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며 기자 전승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시기도 왕부가 이 사료를 작성한 2세기 중엽으로 보았다(尹龍九, 앞의 논문, 1998b, 128쪽).

68) 『潛夫論』 卷8 「五德志」 第34. “武王封微子於宋 封箕子於朝鮮”(『四部備要』 357, 臺灣中華書局, 1981, 33쪽).

통해서도 왕부는 서북한 지역 낙랑군에 대한 기본 지식과 영토적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사료 <다>는 『시경』에 등장하는 한후를 고조선 왕족과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사료 <나>와 함께 위만조선 이후 서북한 지역에서 한씨 성을 사용하고 있던 고조선 왕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이다.

선행 연구에서 준왕 일족이 한씨를 모성했다고 하는 것은, 낙랑의 한씨가 자신들의 가계를 분식하기 위해 조선 왕의 후손들이 한씨를 모성했다고 꾸민 위계보(僞系譜)에 근거한 후대의 부회(附會)라고 하였다.⁷⁰⁾ 이 견해는 사료 <나>와 관련하여 낙랑 한씨를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낙랑 한씨가 자신들의 가계를 높이기 위해 준왕 일족이 한씨를 모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추측이다. 자신들의 가계를 분식시키기 위함이었다면, 낙랑의 왕씨(王氏)와 같이 처음부터 자신들이 기자의 후손이거나 고조선의 왕족이었다고 함이 더 유리할 것이다.

낙랑 한씨를 알아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씨를 포함한 중국계 성씨가 나타나는 명문 자료이다. 낙랑군 시기의 무덤과 토성 등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살펴보면 왕(王)·한(韓)·고(高)·장(張)·전(田)·동(修)·공손씨(公孫氏) 등의 다양한 중국계 성씨가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특히 왕씨와 한씨가 나타나는 자료가 월등히 많으며, 시기적으로도 두 성씨는 대방군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⁷¹⁾

논의의 진척을 위해 낙랑 한씨와 관련된 유물만 좀 더 살펴보겠다. 우선 낙랑 한씨와 관련된 유물 중 그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낙랑 후기 벽돌무덤(塼築墳)에서 출토되는 명문전(銘文塼)이다. 기년을 알 수 있는 것은 6점인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光和五年(182)韓氏造塼”라 새겨진 명문전이고, 가장 후대의 것은 “建始元年(407)韓氏造塼”이라 새겨진 명문전이다. 이 외에도 결락된 부분이 있지만 한씨와 관련된 명문전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6점이 더 있어,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한씨 관련

69) 『潛夫論』 卷3 「浮侈」 第12. “東至樂浪 西至敦煌 萬里之中 相競用之”(위의 책, 16쪽); 『潛夫論』 卷5 「救邊」 第22. “東開樂浪 西置敦煌 南踰交趾 北築朔方”(위의 책, 19쪽).
70) 今西龍, 「箕子朝鮮傳說考」, 『朝鮮古史の研究』(國書刊行會, 1970), 132-142쪽.
71) 三上次男, 「樂浪郡社會の支配構造と土着民の狀態」,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吉川弘文館, 1966), 53-62쪽; 孔錫龜, 「平安·黃海道地方出土 紀年銘塼에 대한 研究」, 『진단학보』 65(진단학회, 1988), 19-20쪽.

명문전은 모두 12점이다. 다음 인장(印章)으로는 평양 정오동 3호분에서 출토된 “韓堯私印”이라 새겨진 인장과 정확한 출토지를 알 수 없는 “韓范君印”이라 새겨진 인장이 있다. 봉니(封泥)는 낙랑의 토성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韓賀之印”과 “韓信印”이라고 새겨진 두 개의 봉니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오관연(五官掾)을 지낸 왕우(王旰)의 묘에서 출토된 ‘리한(利韓)명(銘) 이배(耳杯)가 있는데, 이는 왕우의 부인 한씨의 유물로 판단된다.⁷²⁾

『사기』 조선열전에서 왕겹(王峽)과 한음(韓陰)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두 성씨는 위만조선 시기부터 지배 세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낙랑군 시기가 되어서는 토성이나 무덤 등에서 출토되는 인장·봉니·명문전 등의 명문 자료에 나타나는 성씨 중 가장 많이 확인되는 성씨이다. 명문 자료에서 한씨가 왕씨와 다른 점이라면 왕씨의 경우 인장과 봉니에서 관인(官印)이 다수 확인되지만 한씨의 경우는 모두 사인(私印)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문헌 사료에서 군현의 장리(長吏)와 속리(屬吏) 중에 왕씨 성의 인물이 종종 확인되는 것에 비해 한씨 성의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과 상응한다.⁷³⁾ 그러므로 서북한 지역의 한씨는 한(漢)나라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층이나 군현 설치 이후 유입된 집단 등으로 볼 수는 없다.⁷⁴⁾

초기 일본인의 연구에서는 왕씨와 한씨를 비롯한 중국계 성씨가 나타나는 유물의 주인공은 군현 설치 뒤 중국에서 이주하여 토착화한 중국계 인물이며, 이들이 군현의 실질적인 지배층이라 하였다.⁷⁵⁾ 그러나 위만조선 시기와 낙랑 전기 서북한 지역 지배 세력자들의 무덤으로 인정되는 나무곽무덤(土壙木槨墓)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무덤의 피장자는 군현 설치 이전부터 서북한 지역에 거주한 토착 원주민으로 생각된다. 기원전 2세기 중반부터 기원전 1세기 후반에 주로 성행했던 서북한 지역의 나무곽무덤은 형식상에서 고조선계 움무덤 형태를 그대로 이은 것으로,

72) 이상 낙랑 한씨 관련 유물은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1992)’과 ‘국립중앙박물관편, 『낙랑』(2001)’을 바탕으로 하였다.

73) 낙랑·대방군의 長吏와 屬吏 명단은 ‘오영찬, 『낙랑군의 통치 구조』, 『낙랑군 연구』(사계절출판사, 2006), 112-117쪽’을 참고하였다.

74) 漢代의 지방제도에서 장리층은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고 속리층은 토착인이 담당했던 것을 감안하여 낙랑 한씨가 낙랑 지역의 속리로 진출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李成珪, 『중국 군현으로서의 낙랑』, 『낙랑 문화 연구』(동북아역사재단, 2006), 65쪽.

75) 三上次男, 앞의 책, 23-82쪽.

단순히 움무덤에 나무곽을 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장유물 또한 토착적인 세형동검과 화분형토기가 가장 대표적이며, 그 외 철제 무기와 공구 및 각종 마구류와 수레 부속품 등이 조합을 이룬다.⁷⁶⁾ 그 뒤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는 나무곽무덤의 계통을 그대로 이으며 중국 제품이 증가하는 귀틀무덤으로, 그리고 2세기 후반부터는 다시 벽돌무덤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나무곽무덤의 양식과 부장유물은 전통적인 요동과 서북한 지역의 고조선계 세형동검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무곽무덤의 피장자와 그들의 선조는 세형동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요동과 서북한 지역의 토착 고조선계 주민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중국계 성씨가 새겨진 유물을 낸 나무곽무덤이라 하더라도 다른 무덤과 특별한 차이 없이 세형동검 등 토착문화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한다.⁷⁷⁾ 앞에서 언급한 “韓號私印”과 “利韓”명 이배도 서북한 지역의 나무곽무덤에서 출토된 것에 비추어보면 낙랑 한씨 또한 고조선계의 재지 토착 세력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문헌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낙랑군 시기 왕씨와 한씨의 중국식 성을 가진 낙랑인 상당 부분을 중국계보다는 고조선계라고 더 강력히 주장한다. 주요 근거가 되는 것은 신(新)나라에서 후한으로 교체되는 혼란기에 낙랑에서 반란을 일으킨 왕조(王調)를 『후한서』 「왕경전(王景傳)」에서 ‘토인(土人)’이라 표현하였고, 「광무제기(光武帝紀)」에서는 ‘낙랑인(樂浪人)’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고조선계의 토착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⁷⁸⁾

이러한 명문 자료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낙랑 한씨의 계통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들은 비록 한씨라는 중국식 성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위만 조선 이전부터 서북한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재지 토착 세력으로 보아야 한다. 설사 진(秦)·한(漢) 교체기 위만과 같이 요동 지역에서 유입된 전국계 유민이라 할지라도, 위만의 계통은 고조선계로 보아야

76) 리순진, 「우리나라 서북지방의 나무곽무덤에 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사회과학출판사, 1983), 112-133쪽.

77) 尹龍九, 「樂浪前期 郡縣支配勢力의 種族系統과 性格」, 『역사학보』 126(1990), 21-32쪽; 吳永贊, 「樂浪郡의 土着勢力 再編과 支配構造」, 『한국사론』 35(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6), 5-29쪽.

78) 李成珪, 앞의 논문, 32-33쪽.

하며⁷⁹⁾, 더 나아가 위만을 포함한 전국계 유민 또한 요동 지역에 산재하였던 동이계로 보아야 한다.⁸⁰⁾ 낙랑군 시기 서북한 지역 한씨에 대해 더 이상의 기원과 계통을 밝힌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고조선계 토착 주민 집단이었다는 것 정도로 결론짓고자 한다.

그렇다면 사료 <나>의 한씨 모성 기사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근에는 사료 <나>에 대해, 위만에게 패한 뒤 기자의 후예라고 칭하던 기준(箕準)의 일족들이 다시 자신들의 가계를 높이기 위해 낙랑에서 압도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던 한씨의 성을 칭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⁸¹⁾ 이 설은 치밀한 논증과 명확한 근거 없이 추측에 가까운 짧은 서술이다. 그러나 준왕 일족이 한씨를 모성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상황에 부합시켜 사료를 온전히 해석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사기』 조선열전의 한음이라는 인물을 위만에게 패한 뒤 평양에 남아 한씨를 모성한 준왕의 일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⁸²⁾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료 <나>를 신뢰하고 서북한 지역 한씨의 토착성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타당한 견해라 생각 된다.

고조선 시기와 낙랑군 시기 서북한 지역에서 한씨 성을 가진 세력 집단에 비추어보면, 준왕의 아들과 친척들이 한씨를 모성했다는 기사를 굳이 불신하거나 2차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준왕이 위만에게 패한 뒤 평양에 남은 그의 아들과 친척들이 한씨의 성을 모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당시 재지 토착 세력이었던 한씨의 세력권 내로 편입되었거나 아니면 실제 한씨의 성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세력 집단을 유지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삼국지』의 한자·한왕에 대한 기사는 역사적 사실로 신뢰하지 않고, 『위략』에서 나라에 남은 준왕 일족이 한씨를 모성한 기사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신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韓’이라는 명칭이 형성되는 과정을 장을 바꾸어 살펴보겠다.

79) 李丙燾, 「衛氏朝鮮興亡考」, 앞의 책, 78-82쪽.

80) 千寬宇, 「三韓攷 第1部-三韓의 成立過程」, 앞의 책, 167-168쪽.

81) 武田幸男, 「古朝鮮と樂浪郡」, 『世界の歴史6-隋唐帝國と古代朝鮮』(中央公論社, 1997), 264-265쪽.

82) 李成珪, 「4세기 이후의 낙랑교군과 낙랑유민」, 『동아시아역사 속의 중국과 한국』(최소자교수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2005), 231쪽.

IV. ‘韓’의 인식과 명칭의 형성과정

1. ‘韓’에 대한 인식

‘韓’의 기원이 언급된 사료를 살펴본 것에 이어 다음으로 알아보아야 할 사항은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대한 ‘韓’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어 어느 시기부터 호칭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알아보아야 할 사항은 그 명칭이 자칭(自稱)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타칭(他稱)에 의해 시작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이 점은 『삼국지』 한조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삼국지』 한조에는 마한에 모두 50여 개의 나라가 있고 진한·변한에는 24개의 나라가 산재해 있다고 하며, 그 나라의 이름을 모두 열거하였다. 그리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이 ‘韓’이다. 『삼국지』 한조에 등장하는 국명들은 그들이 스스로 토착어를 사용해 이름 지은 국명을 사가가 음차(音借) 또는 훈차(訓借)하여 한자로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국명은 『삼국사기』 초기 기사에도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나라들은 내외적으로 스스로 국명을 자칭하며 일정한 정치체를 형성하고 동족의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0여 개의 소국을 모두 포함한 한반도 중남부 지역 전체를 지칭하는 ‘韓’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⁸³⁾

‘韓’의 풍속에 대해 “의책(衣幘) 입기를 좋아하여 하호(下戶)들도 군(郡)에 가서 조알(朝謁)할 적에는 모두 의책을 빌려 입으며, 자신의 인수(印綬)를 차고 의책을 착용하는 사람이 천여 명이나 된다”는 기사가 있다.⁸⁴⁾ 군현에서 준 의책 입기를 좋아한다는 것과 천여 명이라는 수치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는 한반도 중남부 지역 한족 사회가 통일된 대외 교섭 창구 없이 분립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료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정치체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83) ‘韓’ 전체가 아닌 마한의 인식에 대해 이와 같이 보는 견해가 있다. 문창로, 「백제의 건국과 고이왕대의 체제정비」, 『백제문화대계 연구총서』 2(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290쪽.

84) 『三國志 魏書』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앞의 책, 851쪽).

소국명을 자칭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 스스로 한반도 중남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적 연합체나 동족의식을 지니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들이 한족(韓族)이며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한지라는 인식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한반도 중남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韓’이라는 명칭은 그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징으로 주변의 예(濊)·맥(貊) 그리고 왜(倭)와 구별하여 2·3자가 인식하고 지칭한 타칭으로 보아야 한다. 그 명칭이 타칭이라면 어느 시기 누가 누구를, 그리고 어느 지역을 어떠한 계기로 ‘韓’이라 지칭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조선 후기 한치윤의 『해동역사(海東譯史)』는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서술하였는데, 방대한 양의 역사책을 두루 섭렵했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된다. ‘韓’의 기원과 관련된 사료도 현재까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이미 언급했다고 할 수 있다. 『해동역사』를 보충한 한진서(韓鎭書)의 『해동역사속집(海東譯史續集)』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산해경(山海經)』·『상서전(尙書傳)』·『모시(毛詩)』에 언급된 것을 들어 ‘韓’이라는 칭호는 이미 삼대(三代)[하(夏)·은(殷)·주(周)]에 있었던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그 명칭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후한서』와 맞지 않고 또 다른 증거가 없어 상세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⁸⁵⁾ 그러나 이 글에서는 『상서전』에 언급된 ‘韓’에 관한 기사는 신뢰할 수 없고, 『모시』에 등장하는 한후·한성은 삼한의 ‘韓’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미 머리말에서 결론지었다.

그 외 『해동역사』와 그 속집에서 언급한 『산해경』의 사료는 「해내동경(海內東經)」에 등장하는 ‘한안(韓鴈)’이다. 청대(清代) 학의행(郝懿行)은 이를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 나오는 삼한으로 보았지만⁸⁶⁾, 이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가 없으며, 『산해경』 「해내동경」의 편찬 연대 또한 여러 가설이 분분하여 기록의 역사성에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다.⁸⁷⁾ 따라서 이를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삼한을 가리킨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삼한의 ‘韓’이라는 명칭 역시 삼대에 이미 있었다고 할 수 없다.

85) 『海東譯史續集』 卷3 「地理考」 3 三韓(한치윤 저, 정선용 역, 『국역 해동역사』 8, 민족문화추진회, 2003, 54-55쪽).

86) 『山海經』 第13 「海內東經」. 「韓鴈[懿行案 韓鴈蓋三韓古國名 韓有三種 見魏志東夷傳]在海中 都州南”(앞의 책, 374쪽).

87) 박대재, 앞의 책(2006), 90-91쪽.

또한 후한 말기 유희(劉熙)가 작성한 『석명(釋名)』에 “한양(韓羊)·한토(韓兔)·한계(韓鷄)는 본래의 법이 한국(韓國)에서 하는 바에서 나왔다”라는 구절이 있는데⁸⁸⁾, 『해동역사』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삼한과 관련지었다.⁸⁹⁾ 하지만 원문이 매우 소략하며 의미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삼국지』 한전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세미계(細尾雞)가 있지만⁹⁰⁾, 그 외 양(羊)과 토(兔)는 동이의 특산품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석명』에 등장하는 한양·한토·한계가 삼한의 특산품을 말하는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지금까지 확인되는 것으로 명확히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韓’을 처음 언급한 인물은 후한 때에 유희보다 조금 앞 시기의 인물인 복견(服虔)이다. 『한서』 광무제(光武帝) 원삭(元朔) 원년(元年)의 창해군(滄海郡) 설치 기사에 복견의 주(注)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 진한이 언급되어 있다.⁹¹⁾

다음은 문헌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韓’이 등장하는 시기를 알아보자. 사료 <가-1-2>와 <나>의 준왕 관련 기사를 제외하고 ‘韓’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왕망(王莽) 지황(地皇) 연간(20-22)에 진한의 우거수(右渠帥)가 된 염사착(廉斯鑿)이 낙랑에 귀부했다는 기사이다.⁹²⁾ 그리고 이와 동일한 성격의 기사로, 후한 광무제 20년(44) “한국인(韓國人)이 무리를 이끌고 낙랑에 귀부했다”는 기사가 있다.⁹³⁾ 두 기사 모두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한인이 낙랑군에 귀부하는 기사이다. 시기적으로도 거의 동시대라 할 수 있으며 낙랑군이 설치된 지 1세기가 지나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이다. 이후 『삼국지』 한조에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韓’ 또는 삼한의 대외교섭 기사는 모두 군현과의 기사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 정치체가 ‘韓’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88) 『釋名』 卷4 「釋飲食」 第13. “韓羊韓兔韓鷄 本法出韓國所爲也”(『釋名疏增補』, 臺灣商務印書館, 1963, 211쪽).

89) 『海東繹史』 卷3 「世紀」 3 三韓(앞의 책, 41쪽); 『海東繹史』 卷26 「物產志」 1 總論(앞의 책, 80쪽).

90) 『三國志 魏書』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又出細尾雞 其尾皆長五尺餘”(앞의 책, 850쪽).

91) 『漢書』 卷6 「武帝紀」 第6, 顏師古注 所引. “服虔曰 穢狛在辰韓之北 高句麗沃沮之南 東窮于大海”(앞의 책, 169쪽).

92) 『三國志 魏書』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裴松之注 所引 『魏略』. “至王莽地皇時 廉斯鑿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落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앞의 책, 851쪽).

93) 『後漢書』 卷1下 「光武帝紀」 第1下. “秋 東夷韓國人率衆詣樂浪內附”(앞의 책, 72쪽).

것은 군현과의 교섭 기사부터이며, 여기부터 한반도 중남부 지역 정치체의 명확한 대외관계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문헌이 바로 『삼국지』 한조이다. 낙랑군이 설치된 지 1세기 정도가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자 군현과 한반도 중남부 지역과의 직접적인 교섭관계가 시작되었으며, 그 기사에서 비로소 한인·한국 또는 삼한 등의 명칭이 등장하는 것이다.

다음은 고고학적 유물에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韓’이 등장하는 사례를 살펴보겠다. 이 경우 먼저 들 수 있는 자료는 경상북도 상주 출토로 전하는 ‘위술선한백장(魏率善韓佰長)’ 동인(銅印)이다. 이 동인은 문헌에 나타나는 경우와 같이 서북한 지역의 중국 군현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소국(小國) 거수(渠帥)에게 작호(爵號)와 함께 인장을 준 동인으로 판단된다.⁹⁴⁾ 그리고 1932년 평양역 구내 공사 중 발견된 “永和九年(353)三月十日遼東韓玄菟太守領修利造”라 새겨진 명문전도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동리(修利)라는 인물은 요동(遼東)·한(韓)·현토(玄菟) 세 지역의 태수를 칭하고 있다.⁹⁵⁾ 그러나 이는 실제 동진(東晉)으로부터 받은 관직이기보다는 당시 낙랑 지역의 유력 지방 세력이었던 그가 자칭한 허구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⁹⁶⁾ 낙랑인 동리가 북쪽의 요동·현토와 함께 남쪽 지역의 ‘韓’에 대해서도 허구적으로 태수를 자칭한 것이다. 문헌에 비해 시기가 뒤쳐지지만 두 유물 모두 낙랑에서 발행한 것으로 낙랑인들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韓’이라 인식하고 지칭한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韓’이라는 명칭이 시작된 것은, 기원전 108년 낙랑군이 설치되고 군현이 그 지역과 직접적인 교섭을 하게 되면서부터 낙랑인들에 의해 처음 호칭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그 시기는 후한 때 복건이 진한이라는 명칭을 처음 언급한 것을 하한으로 잡으면, 군현 설치 뒤인 전한 말에서 후한 초 사이라고 할 수 있다.

94) 李賢惠, 「三韓 小國의 構成과 政治·社會的 性格」, 앞의 책, 107쪽.

95)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앞의 책, 385쪽.

96) 孔錫龜, 앞의 논문, 24-25쪽.

2. 고조선계 유민의 남하와 진한의 형성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낙랑인들이 자신들의 남쪽 지역인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어떠한 연유로 ‘韓’이라 인식하고 호칭하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낙랑인들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 주민들을 인식하고 호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료는 없다. 하지만 반대로 진한인들이 낙랑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호칭하였는지 보여주는 사료가 있어 이 문제를 푸는 데 하나의 열쇠가 된다.

<라> 진한의 노인들이 대대로 전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옛날의 망명인으로 秦나라의 苦役을 피하여 韓國으로 왔는데, 마한이 그들의 동쪽 땅을 분할하여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였다. [...] 진한인들은 樂浪 사람을 阿殘이라 하였는데, 동방 사람들은 我라는 말을 阿라 하였으니, 樂浪人들은 본래 그중에 남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⁹⁷⁾

진한 사회의 형성에 대해 전하고 있는 이 사료의 전체적인 맥락은 중국으로부터 진한까지의 주민이동이다. 중국인들이 중원 지역에서 시작하여 서북한 지역을 거쳐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도달하여, 이 망명인들에 의한 진한의 형성을 전해주고 있다. 진한의 기원과 형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서술은 마한과 변한 조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삼국지』 한전에서 진한 조항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다.

그 진한의 기원에 대해 사료 <라>에서는 진한 사람의 말을 빌려 진의 고역을 피해 옮겨 온 사람들에 의한 것으로 전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인들 중에 일부가 기원전 3세기 말-기원전 2세기 초 진의 고역을 피해 한반도 중남부 지역까지 왔다고는 할 수 없다. 진의 고역을 피해 한국으로 왔다는 유민은,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위만과 함께 서북한 지역으로 유입된 전국계 유민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들이 기원전 108년 고조선 멸망 전후 다시 조선 유민에 섞여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⁹⁸⁾ 중국인들이 한반도

97) 『三國志 魏書』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其耆老傳世 自言古之亡人避秦役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 名樂浪人爲阿殘 東方人名我爲阿 謂樂浪人本其殘餘人”(앞의 책, 852쪽).

98) 權五榮, 앞의 논문(1996), 45쪽; 박대재, 앞의 논문(2005), 19-21쪽.

남부 지역까지 와서 진한을 이루었다는 것은 사료 <가-1>과 마찬가지로 진수의 간단명료하고 중국 중심의 서술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료 <라>에 의거하여 진한의 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면, 중국계 망명 집단보다는 후반부에 서술되어 있는 낙랑과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낙랑 지역에서 진한 지역으로 고조선계 유민이 옮겨간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기원전 2세기 말에서 기원후 1세기 고조선계 주민이 진한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⁹⁹⁾ 고고학적 연구에서도 기원전 2세기 말 이후 경주·대구 지역에서 나타나는 움무덤과 나무곽무덤에서 출토되는 철기를 반출하는 청동기 유물은 서북한 방면의 고조선계 청동기·철기 문화와 강한 계승성이 확인되어 서북한 지역의 고조선계 유민의 남하를 증명해준다고 한다.¹⁰⁰⁾ 그리고 이러한 고조선계 유민의 남하가 사로국(斯盧國)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다는 것은 최근의 연구에서¹⁰¹⁾ 더욱 명확히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조선계 유민이 경상도 지역으로 남하하는 과정에서 경기·충청 지역을 지나지 않을 수 없으며¹⁰²⁾, 그들이 모두 경상도 지역으로만 집중되어 최종적으로 그 지역에서 진한의 형성으로만 귀결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낙랑인들도 경상도 지역보다는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경기도 지역의 정치체와 먼저 교섭하였을 것이고 그들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경기도 가평 달전리 유적이다. 달전리 유적에서는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고조선계 움무덤이 확인되었다. 총 5기가 발견된 낙랑 고조선계 움무덤은 곽(槨)을 사용하면서 토광(土壙)을 단이 지게 토굴하는 서북한 지역의 것과 같은 형식이며, 출토 유물 또한 화분형토기와 철기를 반출하는

99)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始祖 赫居世居西干. “先時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爲六村”(鄭求福 外, 『譯註 三國史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7쪽).

100) 李賢惠, 앞의 책, 59-81쪽; 崔秉鉉, 「新羅早期 土壙墓의 出現背景과 斯盧國의 支配勢力」, 『新羅古墳研究』(일지사, 1992), 91-100쪽.

101) 김병곤, 「신라 초기 왕실 집단의 出自와 사회적 성격」, 『신라 왕권 성장사 연구』(학연문화사, 2003), 161-167쪽.

102) 진한 세력이 남하하는 과정 중에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렀다는 지적은 일찍이 선행 연구에서부터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남하과정 중의 辰韓을 辰國으로 보았고, 「신라본기」 초기 기사에 등장하는 낙랑·백제와의 대외관계 기사를 그 진한 세력의 것으로 보았다. 千寬宇, 앞의 논문, 177-190쪽.

청동기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고 한다. 보고자 또한 이를 고조선 멸망 뒤의 혼란기에 고조선 유민들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전하는 『삼국지』와 『삼국사기』 등의 문헌 기사가 고고학적 자료로 확인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¹⁰³⁾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가평 달전리 유적에서만 확인되지만, 고조선이 멸망한 기원전 108년 전후 그 유민의 남하는 한반도 중부 지역을 거쳐 경상도 지역으로 남하하였고 일부는 여전히 한반도 중부 지역에도 존속하였을 것이다.¹⁰⁴⁾

그 남하한 진한 사람들은 사료 <라>에서 보이듯이, 낙랑에 남은 자신들의 잔여인(殘餘人)을 ‘阿殘’이라 하였다. 사료 <라>의 이러한 구체적 서술은 중국인들이 접한 진한의 특징을 전해주는 것으로 특별히 불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阿殘’이라는 표현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먼저 동방 사람들은 아(我)를 아(阿)라 하기 때문에 ‘阿殘’이라 한 것으로 보아, 고조선계 유민인 진한 사람들은 중국과 다른 말을 쓰는 서북한 지역의 토착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낙랑에 남은 자신들의 일부를 잔여인이라는 의미로 ‘阿殘’이라 했으므로, 옮겨 온 자신들이 고조선 사회의 주체였으며 지배 집단이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전하고 있다. 이렇듯 진한으로 남하한 고조선계 유민이 고조선 사회의 토착민이며 동시에 지배 집단이었다면, 이를 앞장에서 알아본 ‘나라에 남은 준왕 일족과 ‘모성의 대상이 된 서북한 지역의 한씨 집단’으로 연결시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비록 낙랑에서 여전히 한씨가 큰 집단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대규모 남하한 고조선 유민 중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서북한 지역 지배층의 남하에 한씨 성을 사용하고 있던 집단들도 포함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남하가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韓’이라는 명칭이 형성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설사 남하한 고조선계 유민 중 실제 한씨 성을 사용한 유민들이 소수이며, 그들이 남하한 진한 사회에서는 한씨 성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만 이전의

103) 朴成熙, 「경춘북선 가평역사부지(달전리) 발굴조사」, 『고구려 고고학의 제 문제-제27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한국고고학회, 2003), 143-153쪽.

104) 진국을 한강 유역에 설정하여, 기원전 108년 전후 고조선 유민이 진국으로 옮겨 와 진국이 해체되고 그 진국과 고조선 유민이 다시 경상도 지역으로 옮겨 가면서 진한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盧重國, 앞의 논문, 27-31쪽.

고조선 왕족들이 한씨 성을 사용한다는 것과 그 지역에서 한씨가 토착 지배 세력이라는 것으로도, 낙랑인들은 남하한 고조선계 유민을 ‘韓’과 관련지어 호칭하였을 것이다.

다음은 고조선계 유민이 ‘韓’이라는 씨족명으로 대표되어 인식된 것과 함께, 거기에 ‘辰’이라는 개념이 붙어 진한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 글에서 ‘韓’의 명칭과 더불어 ‘辰’의 기원과 그 어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진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즉 진국의 위치비정과 그 정치적 실체, 진국과 진왕의 관계, 그리고 진국과 삼한의 연결관계 등에 대해 모두 논하는 것은 지면관계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명확히 할 수 있는 점은, ‘辰’과 ‘진국(辰國)’이라는 명칭은 일정한 지역에 존재했던 하나의 정치체를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辰’이라는 개념은 ‘韓’이라는 명칭 이전 한반도 중남부 지역과 관련된 하나의 명칭이었다는 점이다. ‘韓’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이전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진국’이라는 명칭, 삼한 각 지역에 존재한 ‘진왕(辰王)’, 그리고 변진(弁辰)이라는 명칭들이 이를 짐작케 해준다. 중국 사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辰’에 대한 용례는, ‘韓’이라는 명칭 이전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사용되었던 토착적인 명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고시대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지칭하였던 이러한 ‘辰’에 대한 개념과 『삼국지』 한조에서 특별히 진한만을 고조선계 유민이 남하하여 형성된 것으로 서술한 것을 생각해보면, 한반도 중남부 지역 삼한의 명칭은 진한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¹⁰⁵⁾

낙랑인들 또한 사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韓’이라는 명칭 이전 한반도 중남부 지역과 관련된 ‘辰’이라는 개념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辰’이라는 개념을 가진 한반도 중남부 지역 중에 한씨로 대표되는 고조선계 유민이 남하한 지역 또는 그러한 소국만을 따로 묶어 ‘진한’이라 지칭한 것인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그 뒤 정치·문화적 특징으로 진한과 구분되는 한반도 중남부 지역권을 각각 마한과 변한(변진)으로 나누어 호칭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5) 삼한의 명칭이 진한에서 시작되어 마한과 변한이 파생되었고, 그 이전 진한의 명칭 또한 진국과 관련 있다는 것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글에서는 한반도 중남부 지역 ‘韓’의 개념은 고조선계 유민과 관련 없이 이미 존재해 있었고, 고조선 주변의 ‘辰’의 세력이 ‘韓’의 지역으로 남하함으로써 인해 진한의 명칭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申鉉雄, 앞의 논문, 133쪽.

V. 맺음말

지금까지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지칭한 ‘韓’이라는 명칭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주 논점에서 기존의 견해와 다른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보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추측이 논리성을 결여하는 잘못을 범하여 본모습을 왜곡하지는 않았을까 우려된다. 논리 전개상 매끄럽지 못하고 거친 면이 다소 있으므로 우선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보겠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준왕이 한지에 가서 한왕을 칭했다’는 『삼국지』 한조의 기사를 근거로, 한반도 중남부 지역 ‘韓’이라는 명칭은 준왕 남천 이전부터 있었던 토착적인 것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준왕이 한지에 가서 한왕을 칭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준왕의 남천 자체까지 부정해보았다. 그리고 이를 진수의 간단명료한 서술 방식과 중국 중심의 서술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후대의 인식이 반영되어 꾸며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위략』에서 평양에 남은 준왕 일족이 한씨를 모성했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위략』의 기사는 『삼국지』의 한왕 기사와 그 계통이 다른 것으로, 서북한 지역의 역사적 전승이 온전히 전해져 『위략』에 수록되고, 다시 배송지에 의해 『삼국지』의 주로 인용된 것이다. 모성의 대상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북한 지역의 토착 지배 세력인 한씨와 연결 지어 보았고, 그 근거를 한씨 성이 등장하는 명문 자료로 보충하였다. 그래서 위만조선 시기 평양에 존재하였던 준왕의 일족은 당시 하나의 지배 세력이었던 한씨의 성을 실제 모성했거나 그 세력권 내로 편입된 것이다.

‘韓’의 기원을 보여주는 두 개의 사료를 알아본 것에 이어 ‘韓’이라는 명칭이 어느 시기부터 누구에 의해 호칭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삼국지』 한조의 전체적인 서술 맥락과 대외관계 기사를 통해서 볼 때, ‘韓’이라는 명칭은 기원 전후 낙랑인들에 의해 붙여진 타칭이다. 위만조선이 멸망하는 혼란기에 서북한 지역의 많은 고조선계 주민이 남하하였고, 그중 한씨 성을 사용한 집단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위만 이전의 고조선 왕족이 한씨 성을 사용한다는 것과 한씨가 고조선 사회의 유력한 토착 지배 세력이라는 것 등으로 인해, 낙랑인들은 남하한 고조선계 유민에게 ‘韓’이라는 개념을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韓’이라는 명칭 이전 한반도

중남부 지역과 관련된 명칭은 ‘辰’이라는 토착적 개념이다. 낙랑인들은 모호하게 ‘辰’으로 인식되어 있던 한반도 중남부 지역 중 고조선계 유민이 옮겨 간 지역만을 따로 구분하여 ‘진한(辰韓)’이라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삼한(三韓)의 명칭은 진한이 처음 생겨났고, 정치·문화 등의 특징으로 진한과 구별되는 주변 지역을 다시 마한과 변한으로 나누어 호칭한 것이다.

이상이 본문에서 서술한 주 논지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삼한의 명칭이 형성되었고 그 뒤 한반도 중남부 지역 전체를 ‘韓’ 또는 ‘삼한’이라 인식하고 지칭하였던 것이다. 사료에 나타나는 ‘한인(韓人)’·‘한국(韓國)’이라는 표현, 그리고 “준왕이 한지에 가서 한왕을 칭했다”는 전승 또한 이렇게 형성된 ‘韓’에 대한 인식 위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 글의 문제 제기는 단순히 韓이라는 명칭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관련 사료의 영세함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또한 다루게 된 시기도 삼한은 물론이고 낙랑과 고조선까지 언급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선행 연구를 충분히 반영한지 못했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결함이 있음을 인정한다. 논의의 전개상 더 깊이 서술할 부분이 있고 논지를 더 이어나가야 할 부분이 있지만, 필자의 능력과 지면의 부족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

먼저 이 글에서는 준왕의 남천과 그에 따른 韓의 기원에 대해 모두 부정하였지만, 준왕의 실체와 위만에게 패한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이 글뿐만 아니라 고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 간의 상관관계와 개념 규정에도 관련된 문제로서 앞으로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¹⁰⁶⁾ 다음은 이 글의 후반부에 이어질 문제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이 ‘韓’·‘삼한’이라는 인식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하는 문제이다. 즉, 낙랑인들에 의해 ‘韓’·‘삼한’이라는 명칭과 인식이 형성되어 중국 사서에 정리된 이후부터 신라의 일통삼한(一統三韓)에서 비롯된 삼한(三韓)=삼국(三國) 인식¹⁰⁷⁾ 이전 사이에 ‘韓’·‘삼한’에 대한 명칭과 인식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글의 부족한 점과 미처 다루지 못한 사항은 차후 다른 글에서

106) 金貞培, 「고조선 연구의 현황과 과제」, 『단군학연구』 9(단군학회, 2003), 15-16쪽.

107) 盧泰敦,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한국사연구』 38(1982); 김영하, 「一統三韓의 실상과 의식」, 『한국고대사연구』 59(2010), 314-320쪽.

지속적으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글은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韓’이라는 명칭이 ‘韓’으로 대표되는 고조선계 유민의 남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주 논지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준왕과 관련된 ‘韓’의 기원과 남천전승을 부정하였고, 『위략』의 한씨 모성 기사는 『삼국지』의 한왕 기사와 별개의 사료로 한씨 명문 자료를 통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논지를 주장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I. 史料

- 『三國史記』(鄭求福 外, 『譯註 三國史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三國遺事』(姜仁求 外, 『譯註 三國遺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我邦疆域考』(이민수 옮김, 『아방강역고』, 범우사, 1995).
『海東釋史』(정선용 역, 『국역 해동역사』 1, 민족문화추진회, 1996).

『史記』(中華書局, 1962).
『漢書』(中華書局, 1962).
『後漢書』(中華書局, 1965).
『三國志』(中華書局, 1982).
『隋書』(中華書局, 1973).
『舊唐書』(中華書局, 1975).
『尚書』(藝文印書館印行, 『重刊宋本 十三經注疏』 1, 1982).
『山海經』(郝懿行, 1967, 『山海經箋疏』, 藝文印書館, 1967).
『潛夫論』(臺灣中華書局, 『四部備要』 357, 1981).
『釋名』(臺灣商務印書館, 『釋名疏增補』, 1963).
『博物志』(臺灣中華書局, 『四部備要』 422, 1981).
『史通通釋』(臺灣中華書局, 『四部備要』 320, 1981).
『滿洲源流考』(尹百鉉 編, 『滿洲源流考』, 弘益齋, 1993).

II. 국내 논저

- 孔錫龜, 「平安黃海道地方出土 紀年銘傳에 대한 研究」. 『진단학보』 65, 진단학회, 1988.
국립중앙박물관편, 『낙랑』. 2001.
權五榮,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_____, 「馬韓의 종족성과 공간적 분포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60, 한국고대사학회, 2010.
김병근, 『신라 왕권 성장사 연구』. 학연문화사, 2003.
金庠基, 「韓·濊·貊 移動考」. 『동방사논총』, 서울대학교출판부, 1948.
김영하, 「一統三韓의 실상과 의식」. 『한국고대사연구』 59, 한국고대사학회, 2010.
金貞培, 『韓國古代의 國家起原과 形成』.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6.
_____,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신서원, 2003.
_____, 「고조선 연구의 현황과 과제」. 『단군학연구』 9, 단군학회, 2003.
金廷鶴, 『韓國民族形成史』. 『한국문화사대계』 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4.

- 盧重國 「馬韓의 成立과 變遷」. 『마한·백제문화』 10,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7.
- 盧泰敦,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한국사연구』 38, 한국사학회, 1982.
- _____,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 1998.
- _____, 「문헌상으로 본 백제의 주민구성」. 『백제문화대계 연구총서 2-백제의 기원과 건국』,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 리순진, 「우리나라 서북지방의 나무귀무덤에 대한 연구」. 『고고민속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83.
- 리지린,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1963.
- 문창로, 「백제의 건국과 고이왕대의 체제정비」. 『百濟의 起源과 建國-百濟文化史大系 研究叢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 _____,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삼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2, 한국고대사학회, 2011.
- 박노석,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정보 출처에 대한 고찰」. 『전북사학』 38, 전북사학회, 2011.
- 박대재, 「三韓의 기원에 대한 사료적 검토」. 『한국학보』 31, 일지사, 2005.
- _____, 「삼한의 기원과 국가형성」. 『한국고대사입문』 1, 신서원, 2006.
- _____,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2006.
- _____, 「준왕남래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선사와 고대』 35, 한국고대학회, 2011.
- 朴成熙, 「경춘북선 가평역사부지(달전리) 발굴조사」. 『고구려 고고학의 제 문제』, 한국고고학회, 2003.
- 박준형, 「한국 근현대 기자조선 인식의 변천」. 『고조선사 연구 100년』, 학연문화사, 2009.
- 朴燦圭, 『百濟의 馬韓征服過程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申鉉雄, 『後漢書·三國志 韓傳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_____, 「三韓 起源과 ‘三韓’의 成立」. 『한국사연구』 122, 한국사연구회, 2003.
- 申采浩, 『朝鮮史研究草』. 朝鮮圖書株式會社, 1929.
- 沈載勳,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안 모색: 『詩經』 “韓奕”편 다시 읽기」. 『동방학지』 13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
- 吳永贊, 「樂浪郡의 土着勢力 再編과 支配構造」. 『한국사론』 3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6.
- _____, 『낙랑군 연구』. 사계절출판사, 2006.
- 尹乃鉉, 「箕子新考」. 『한국사연구』 41, 한국사연구회, 1983.
- 尹龍九, 「樂浪前期 郡縣支配勢力의 種族系統과 性格」. 『역사학보』 126, 역사학회, 1990.
- _____, 「三國志 韓傳 對外關係記事에 대한 一檢討」. 『馬韓史研究』, 충남대학교 출판부, 1998a.

- ____,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한국고대사연구』 14, 한국고대사학회, 1998b.
- ____, 「三國志 판본과 東夷傳 교감」. 『한국고대사연구』 60, 한국고대사학회, 2010.
-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 李萬烈, 「17·18세기의 史書와 古代史認識」. 『한국사연구』 10, 한국사연구회, 1974.
-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 李成珪, 「고대 중국인이 본 한민족의 원류」. 『한국사 시민강좌』 32, 일조각, 2003.
- ____, 「4세기 이후의 낙랑교군과 낙랑유민」. 『동아시아 역사 속의 중국과 한국』, 최소자교수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2005.
- ____, 「중국 군현으로서의 낙랑」. 『낙랑 문화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6.
- 李右成, 「朝鮮後期 近畿學派에 있어서의 正統論의 전개」. 『역사학보』 31, 역사학회, 1966.
-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일조각, 1984.
- 任昌淳, 「辰韓位置考」. 『사학연구』 6, 한국사학회, 1959.
- 全海宗, 『東夷傳의 文獻的研究』. 일조각, 1980.
- ____, 「《魏略》과 《典略》」. 『역사학보』 99·100, 역사학회, 1983.
- ____, 「古代 中國人の 韓國觀-文獻批判的 接近」. 『한국사학』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연구실, 1985.
- 丁仲煥, 「辰國·三韓 及 加羅의 名稱考」. 『釜山大學校十周年記念論文集』, 1961.
- 千寬宇, 『古朝鮮史·三韓史研究』. 일조각, 1989.
-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일지사, 1992.
-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1992.
- 黃義敦, 「詩經의 解釋」. 『동국사학』 4, 동국대학교 사학회, 1956.

III. 일본 논저

- 角林文雄, 『倭と韓』. 學生社, 1983.
- 今西龍,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70.
- 吉田東伍, 『日韓古史斷』. 富山房, 1893.
- 那珂通世, 「朝鮮古史考-三韓考」. 『史學雜誌』 6, 東京大學 文學部內 史學會, 1895.
- 武田幸男, 『世界の歴史 6-隋唐帝國と古代朝鮮』. 中央公論社, 1997.
- 三上次男,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1966.
- 田村專之助, 「魏略魏志東夷傳의 性質」 上. 『歷史學研究』 79, 歷史學研究會, 1940.
- 鮎貝房之進, 「韓をカラと訓じたるに就きて」. 『雜攷 新羅王號攷·朝鮮國名攷』, 國書刊行會, 1972.
- 井上秀雄, 「中國文獻にあらわれた朝鮮·韓·倭について」. 『日本書紀研究』 7, 塙書房, 1973.
- 村山正雄, 「辰國臆斷」. 『朝鮮學報』 81, 朝鮮學會, 1976.

이 글의 주 목적은 상고시대에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지칭한 韓이란 명칭의 형성과정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자료는 『삼국지』 한조의 한왕(韓王) 기사와 『위략』에서 준왕(準王) 일족이 한씨를 사용한 기사이다. 그리고 삼한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삼국지』 한조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삼국지』 한조의 한왕 기사는 준왕이 위만에게 패하여 한지에 가서 한왕을 칭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후대의 인식이 반영된 중국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나타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 반면 『위략』에서 준왕 일족이 한씨 성을 사용했다는 기사는 역사적 전승이 온전히 전해져 사료에 실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성의 대상이 된 서북한 지역의 한씨는 낙랑 지역에서 출토되는 명문(銘文) 자료를 통해 그 지역의 토착 지배 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원전 108년 위만 조선이 멸망하자 서북한 지역의 많은 주민은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남하하였는데, 『삼국지』 한조에 의하면 진한(辰韓) 사회만이 특별히 그 유민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진한으로 남하한 고조선계 유민 중에는 한씨 성을 사용한 준왕계 집단과 서북한 지역의 토착 지배 집단이 포함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씨로 대표되는 고조선계 유민의 남하로 인해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韓이라는 명칭이 형성되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 명칭의 형성 시기는 낙랑군 설치 이후로, 낙랑인들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과 직접적인 교섭을 하면서부터 그들이 지칭한 것이라 생각한다. 韓이란 명칭 이전의 한반도 중남부 지역과 관련된 명칭은 辰이라는 토착적 용어였다. 낙랑인들은 辰이라 인식되었던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특별히 고조선계 유민이 옮겨 간 지역만 辰이라 호칭하였다. 따라서 삼한의 명칭은 진한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진한과 정치·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주변 지역을 마한과 변한이라 호칭하였던 것이다.

투고일 2012. 9. 13.

수정일 2012. 10. 24.

게재 확정일 2012. 11. 20.

주제어(keyword) 한(Han), 삼한(Three Han Kingdoms), 진한(Jinhan), 한왕(King of Han), 준왕(King Jun), 낙랑 한씨(Han tribe of Lelang)

